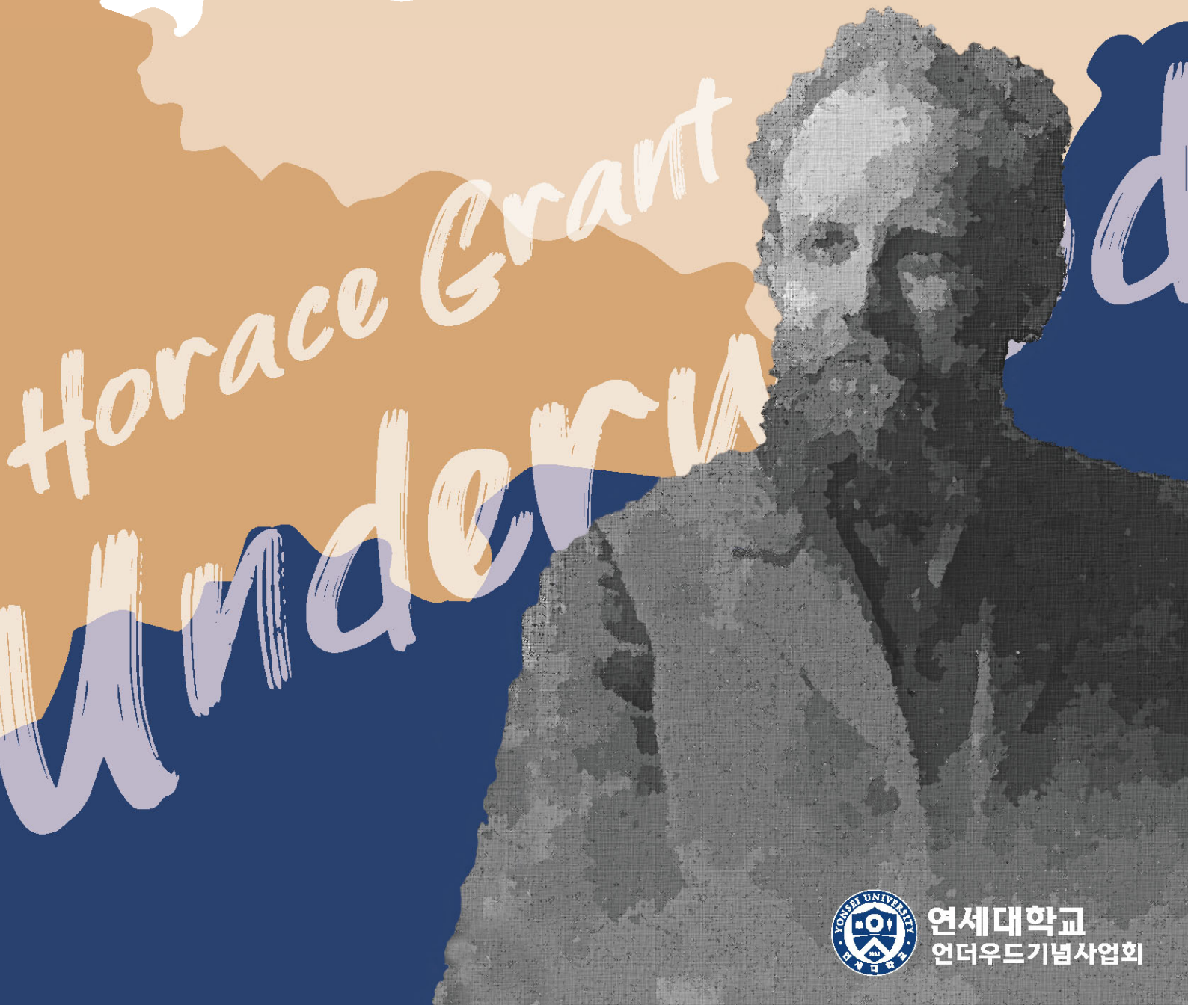
YONSEI UNIVERSITY THE 21ST UNDERWOOD MISSIONARY AWARDS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일시 2021. 10. 12. (화) 오후 3시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후 3시

장소 : 루스채플 예배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

기 념 사

오늘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선교사님의 기일인 10월 12일에 맞춰서 진행하는 이 시상식은 그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면서 본인도 의료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는 해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을 더욱 뜻깊게 새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내한하여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여러 나라에서 내한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의료와 교육 영역에 집중하여 선교하면서 1915년 기독교연합대학인 『조선 크리스쳔 칼리지』를 창립하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이듬해인 1916년 10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기독교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교와 교육을 위해 드린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리고, 그의 믿음과 선교·교육·의료 및 사회봉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에 언더우드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제경오 언더우드선교상 기금을 기반으로 언더우드 선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故 제경오 회장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늘 앞장서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해외 오지나 벽지에서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해오신 선교사님들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께 수여됩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상이 선교사님들의 지금까지의 헌신에 대한 자그마한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더 많은 분이 오늘 수상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은 세 분의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신현광 선교사님은 남미 파라과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역의 주제로 삼고 소외된 인디헤나 부족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라 빠쓰 학교'를 설립하셔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신앙인,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세관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지인 목회를 감당하시고 태국감리교 신학교를 설립하셔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또한, 태국 목회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순영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빈민 계층 아이들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설립한 유치원은 점차 확장되어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하는 '호산나 학교'가 되어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상이 세 분 선교사님의 선교활동에 위로와 격려가 되어, 앞으로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이라는 기치로 Vision Yonsei 150을 선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대학의 참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명의 전환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뜻을 이어받은 연세대학교와 선교사님들이 인류의 갈 길을 밝혀주는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언더우드기념사업회장
연 세 대 학 교 총장 서 승 환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차 례

사회 : 이대성 교목실장

식 전 영 상 ····· 언더우드 활동 소개

전 주 ····· 신 동 일 교수

*찬 송 ····· 빛의 사자들이여 ····· 다 같 이

기 도 ····· 사 회 자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28:19~20 ····· 사 회 자

기 념 사 ····· 서 승 환 총장

선정 경과보고 ····· 김은경 교학부총장

시 상 ····· 총 장

• 언더우드 선교상 : 신현광, 오세관, 정순영 선교사

수상자 선교활동 소개 ····· 영 상

수 상 소 감 ····· 수 상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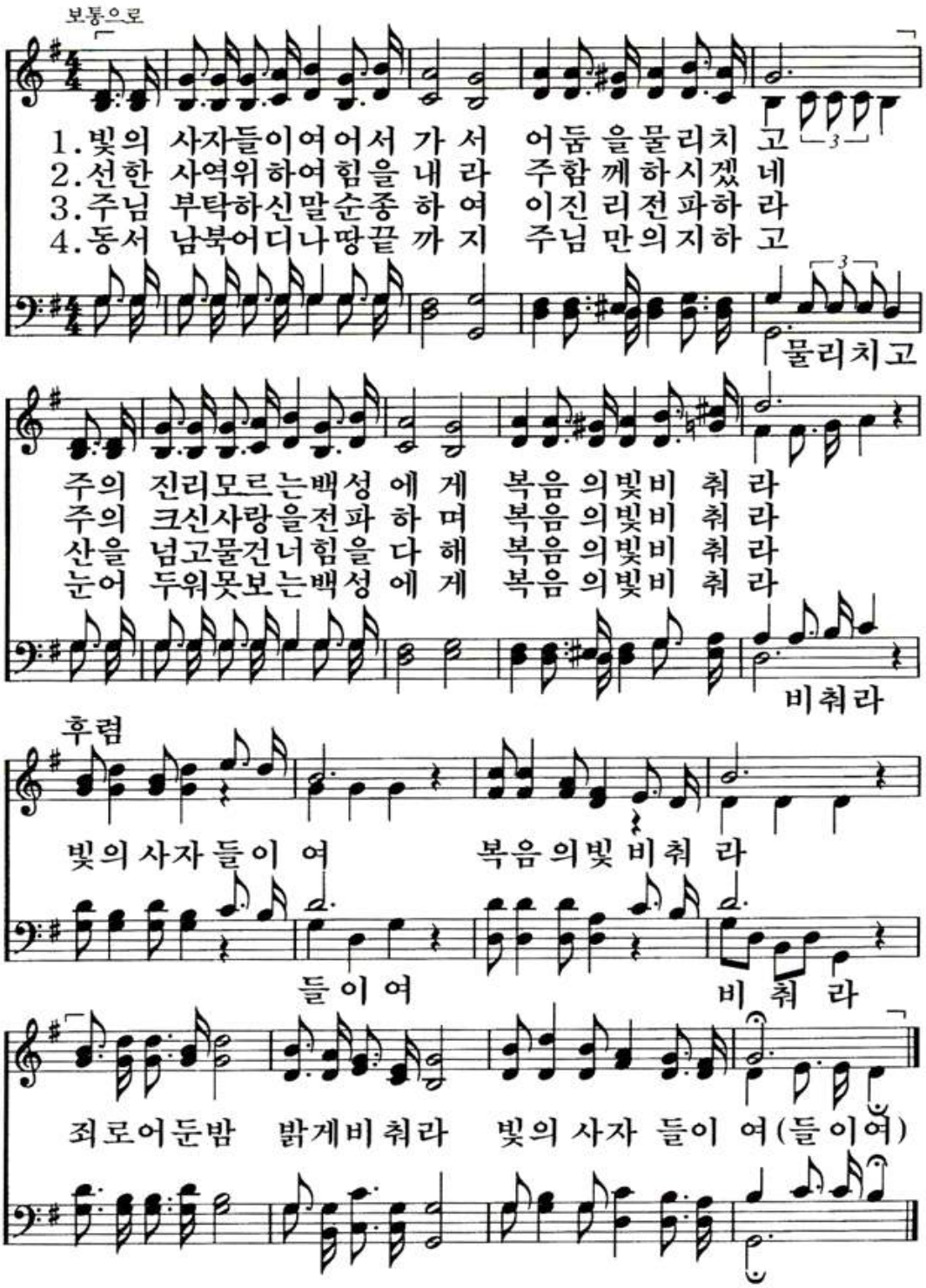
*찬 송 ····· 하나님의 진리 등대 ····· 다 같 이

*축 도 ····· 교 목 실 장

후 주 ····· 신 동 일 교수

[*표는 일어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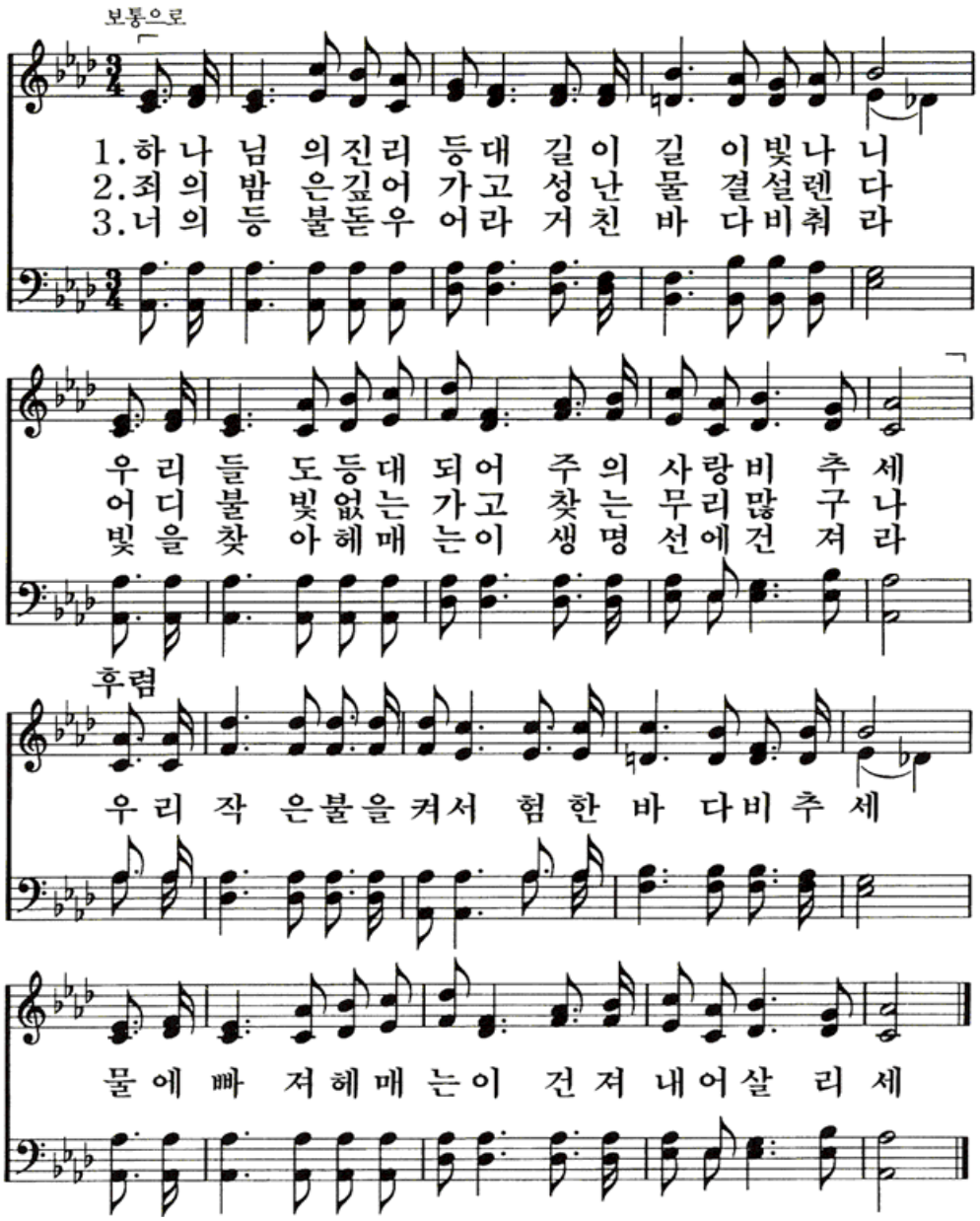
502 빛의 사자들이여


보통으로
1.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2.선한 사역위하여 힘을 내라 주함께하시겠네
3.주님 부탁하신말 순종하여 이진리 전파하라
4.동서 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만의지하고
물리치고
주의 진리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크신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산을 넘고물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눈어 두워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들이여 비춰라
죄로어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들이여)

성경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9~20〉

510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언더우드 선교상 선정 경과보고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선발을 위해, 지난 4월 실무위원회 회의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엔 개신교단 해외선교 담당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교단과 CBS, CTS 등 언론매체를 통해 선발공고를 하였으며, 세계 각지 많은 선교사님이 지원하셨습니다.

예심을 통해 언더우드 선교상 후보 4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7일 언더우드기념사업회 본 회의에서 신현광 선교사, 오세관 선교사, 정순영 선교사를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언더우드기념사업회에서는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식 발표하였으며, 마침내 오늘 시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시상을 위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해외선교를 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송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존경할 만한 공적을 남기셨음을 알기에 최종 수상자를 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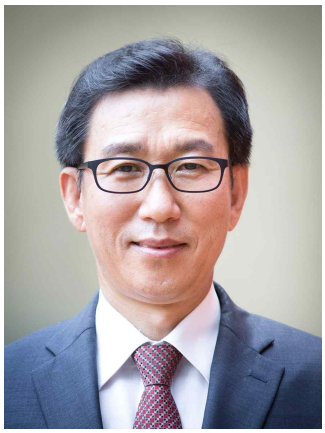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언더우드기념사업회 실무위원장
연 세 대 학 교 교학부총장 김 은 경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소개

신현광 선교사



신현광 선교사(만 58세)는 1994년 파라과이에 처음 입국하여 도시와 인디헤나 부족에 교회 개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신앙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며, 인디헤나 부족에 교화를 개척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그들의 주권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선교사는 파라과이의 씨우닷 델 에스떼(Ciudad del Este)에서 사역합니다. 이 지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개국이 접경하고 있는 국경도시로 소외된 토착민 인디헤나와 다양한 사회적 계층, 인종,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신현광 선교사 사역의 주제는 '파라과이에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라 빠스(La paz)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교회와 학교, 봉사사역의 모든 이름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폭력 없는 가정,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인디헤나의 인권 보호,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 질병과 가난 극복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교육, 봉사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층을 중심으로 도시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청년사역, 찬양단, 전도대를 조직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교회의 리더십이 중산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파라과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라 빠스 학교(Colegio la paz)'를 설립하고 제도권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인,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신앙인,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바 과라니 인디헤나 부족 공동체에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고, '인디헤나 학교'를 설립하여 인디헤나 어린이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사역을 했습니다. 문화와 나눔의 잔치인 '평화의 잔치(Fiesta la paz)'와 소외당하는 인디헤나의 주권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역인 '평화는 가능합니다(La paz es posible)'를 통해 인디헤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신현광 선교사는 '함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상류층의 학교, 중류층의 교회, 소외계층인 인디헤나 부족이 분리된 각각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배우며, 함께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의 선교사역은 '라 빠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평화의 사역입니다.

■ 주요 선교 활동

1. 복음전도 활동

가. 도시 교회 개척

- 현지인에게 지도권 이양

나. 인디헤나 교회 개척

- 인디헤나 공동체의 복음화
- 타 부족 선교의 기틀 마련

2. 교육 활동

가. 라 빠스 학교

- 제도권 학교 설립으로 교육선교
- 비기독교인에게 전도 및 기독교인 신앙 교육
- 지속가능한 선교 기지 확보

나. 까레리아이 인디헤나 학교

- 문맹 퇴치
- 정부가 인디헤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 정규 인디헤나 초등학교로 성장

3. 사회봉사 및 NGO 활동

가. 인디헤나 인권운동: '평화는 가능합니다'(La paz es posible)

- 청소년 봉사활동 교육
- 인디헤나 주체성 확립 교육 및 법률 지원
- 인디헤나 토지 주권 회복 연대
- 인디헤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익창출 지원
- 인디헤나 주택개량 사업 선정

나. 문화축제: 평화의 잔치(Fiesta La Paz)

- 기독교 문화 전파와 나눔의 잔치
- 학생 문화 활동을 통한 상호 협력과 사회성 향상
- 인디헤나 구제와 초청을 통한 그리스도 사랑 체험
- 도시인들의 봉사정신 고취
-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 캠페인

수상소감문

신현광 선교사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군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의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신 언더우드 기념사업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의 영광과 기쁨을 동역한 아내 이미경 선교사와 함께 나눕니다. 선교지의 외롭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한 두 딸과 그 가족들, 누구보다 더욱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형제자매, 파라과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라 빠스 (La paz) 공동체', 그리고 후원해 주신 고국 교회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이래도 되는가?" 지난 28년 동안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며 동시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은 1994년 3월에 당시 5세였던 큰 딸, 8개월이 막 지난 작은 딸과 함께 달랑 가방 4개를 들고 파라과이에 갔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막11:3)는 말씀에 따라갔던 어린 나귀와 같이 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고국에서 목회경험을 하고 교회의 협력을 받아 준비가 된 후 선교지로 가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선교지로 떠나며 질문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1997년에 '라 빠스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지원 없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사역을 하는 것은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선교하는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요구될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우리 두 딸은 우리가 설립한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를 교육하듯이 현지인을 교육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고국의 명문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큰 딸이 우리 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마치 연세대학교가 우리 교육 선교사역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딸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여느 부모들처럼 불안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2003년에 인디헤나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인디헤나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은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하는 삶을 전하면서도 저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저 인디헤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격려에 힘입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귀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구나"하며 변함없이 '파라과이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며 누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소개

오세관 선교사

오세관 선교사(만 61세)는 1990년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태국에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 태국인 목회를 하고, 태국감리교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목회자를 길러내고, 태국목회자 재훈련 교육 세미나를 여는 등 태국목회자들과 연합하여 태국을 복음화하는데 헌신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태국복음주의 연합교단에 지금은 태국감리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한국감리교선교부를 설립하였고 태국복음주의 연합교단 내의 꾸준한 활동으로 회장단에도 당선되어 태국교회 지도자들과도 연합하며 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세관 선교사는 2000년에 국경의 미얀마 카렌족 므에브지역에 므에브학교를 열어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태국감리교신학교를 설립하여 4년 과정의 신학교육을 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태국감리교신학교는 앞으로 한국어과를 비롯한 다양한 과를 신설하여 태국교육부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으려고 계획 중으로 연세대학교와 같은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웨슬리대학과의 MOU를 맺어 대학원 과정도 시작하였습니다.

오세관 선교사는 이런 사역들뿐 아니라 지난 2004년 쓰나미가 발생하였을 때 선교봉사단을 모집하여 현장을 방문해 통역과 도움을 요청하는 마을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11년 방콕에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태국감리교신학교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구호활동을 하였고, 꾸준히 결손가정 아동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태국목회자들을 돕는 등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오세관 선교사는 태국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그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태국교회와 태국 땅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선교 활동

1. 복음전도 활동

가. 랏끄라방 교회 개척 및 담임목회
나. 교인들 및 태국감리교 신학생들과 전도 활동
다. 한국 단기선교팀들과 전도 활동

2. 교육 활동

가. 태국 목회자 재훈련 교육 세미나
나. 므에브학교 개교 후원 및 특강
다. 태국감리교신학교 설립
- 인도네시아 웨슬리대학과 석사과정 MOU 체결

3. 의료 활동

가. 미국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의료선교팀 동역(2000년 ~ 2016년, 연 1회)
나. 김종성 의사와 동역하여 오지마을 의료선교(2010~2020년, 연 1회)
다. 치앙마이 매토교회 이동 진료 약품 지원

4. 사회봉사 및 NGO 활동

가. 2004년 쓰나미 봉사
- 현장 방문 통역과 봉사활동
나. 2011년 방콕 대홍수 구호 활동
- 태국감리교신학교 건물을 임시대피소로 활용하며 구호 활동
다. 결손 가정 후원
라. 코로나 19로 어려움 겪는 목회자 후원
마. 미얀마 국경 지역 카렌족 식량 후원

5. 기타 활동

가. 제21차 인도차이나 5개국 한인선교사회 태국 대회 개최(2020년 10월)
나. 태국복음주의 연합교단 회장단 활동(2018년~2022년)
다. KWMF 한인세계선교사회 회장 활동(2016년~2021년)

수상소감문

오세관 선교사

부족한 제가 2021년 연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제21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상을 지난 3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함께 복음사역을 위하여 동력하고 있는 태국목회자들, 복음 증거가 힘든 불교 문화권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태국에서 벌여 놓은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무리하고 있는 아내 이병숙 선교사와 가족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태국신학교 이사장 되시는 권오현 감독님, 여러 이사님, 후원교회이며 소속교회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태국오세관선교사 기도후원회 회원님,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계신 강상철 목사님, 봉명종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구한말의 어두웠던 시절, 미국의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을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의 명문 연세대학교를 시작하는 데 큰 일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난을 벗고 부강한 한국이 되게 해 주세요. 건강한 한국인이 되게 해 주세요. 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우고 총명한 한국이 되게 해 주세요. 3대에 걸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의 발자취는 영원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더욱 빛나도록 이 상을 만드신 언더우드기념사업회와 관계자분들께 주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런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면서 부족한 저도 당신처럼 태국땅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 남은 생애를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그만 신학교를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상금을 아름다운 강의실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끝으로 태국신학교가 장래 한국의 연세대학교처럼 태국의 연세대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소개

정순영 선교사

정순영 선교사(만 63세)는 1999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빈민층 아이들을 만나 그 아이들을 위해 호산나 유치원으로 시작한 것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하는 호산나 학교가 되어 22년간 빈민층의 소외 받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선교사가 도착한 1999년 캄보디아는 크고 작은 내전 속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고 샤머니즘이 뒤섞여있는 불교와 힌두교의 숙명론에 빠져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어른들 안에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빈민촌 아이들을 만나며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을 통해 호산나 유치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호산나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과 한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꿈꾸며 호산나 학교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던 정순영 선교사는 이와 별개로 여성 선교사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여러 문제와도 맞서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하는 지금의 호산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학교의 태권도단은 매년 열리는 캄보디아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을 이어 오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합창과 클래식 악기를 가르쳐 2010년에 호산나 합창단, 2014년에 호산나 앙상블을 창단하여 2015년부터는 내한 공연을 하고 캄보디아의 국가적 행사 및 기독교 행사 등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영 선교사의 사역은 호산나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캄의료봉사회 멤버로의 활동, 단기 선교팀과의 동역 및 호산나 학교의 학생들을 의대, 약대로 진학시켜 캄보디아 기독교 의료사역의 미래도 준비하고, 캄보디아 교회의 발전과 자립을 돕는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순영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호산나 학교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선교 활동

1. 복음전도 활동

가. 현지교인들과 함께 마을 전도

나. 어려운 현지인 가정 돌봄을 통한 전도

2. 교육 활동

가. 호산나 학교 설립 및 운영

-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

3. 의료 활동

가. 단기 의료선교팀 협력

- 통역 봉사 및 치료 지원

4. 사회봉사 및 NGO 활동

가. 한국 UNICEF와 연계하여 빈민가 지원

- 주택 수리, 빈민 아동 지원

나. 한캄의료봉사회 멤버로 활동

5. 기타 활동

가.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 설립 참여 및 신학교 강의 지원

나. 교육 NGO KOMA 캄보디아 사역 지원

- 인력 및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기독교 유치원 설립과 개발 동참

다. 태국 BEST FRIEND와 협력

- 캄보디아에 성품 개발 프로그램과 세미나 지원

라.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지원 사역

수상소감문

정순영 선교사

오늘은 제 생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잘한 일도 없을뿐더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영예롭고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제 선교사 삶에 롤 모델이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본받아 더 겸손하게 열심히 달려가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첫째는 너도 언더우드와 같이 캄보디아의 밀알이 되어라.

둘째는 너도 언더우드와 같이 기도하여라.

셋째는 너도 언더우드와 같이 세대를 이어 선교하여라.

이 뜻을 깊이 새겨서 지나온 날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잊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혈육의 자녀는 없지만 호산나 학교에서 낳은 영적 자녀들과 함께 세대를 잇는 캄보디아 선교를 연연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작은 호산나유치원이 오늘날의 호산나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갖은 역경을 무릅쓰고 초지일관 지켜온 진심과 열정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루하루는 은혜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여 오히려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21년간을 함께 해 주신 우리 미토나 선생님과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또한 한국의 파송, 후원교회를 비롯한 모든 동역자님과 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모교회인 부산중앙교회의 스승이셨던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상은 함께 호산나 학교를 이루어 온 우리 모두의 상입니다.

이 땅의 생명 다할 때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며 이 상에 부끄럽지 않은 '캄보디아인보다 더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회차	수상년도	성명	교단	선교 지역	파송년도
1	2001	김용만	기감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1980
		진영준	예장 통합	이집트, 요르단	1984
2	2002	강원희	평신도 의료선교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1982
		정윤진	예장 합동	인도	1981
3	2003	방지일	예장 통합	중국 산동성	1933-1957
		정은실	예장 통합	볼리비아	1982
4	2004	장순호	기감	방글라데시 다카, 찔마리	1984
		황윤일	예장 통합	페루 아마존, 뿌갈라	1985
5	2005	김정윤	예장 통합	아프리카 우간다	1985
		임종표	예장 통합	아프리카 소말리아, 르완다	1981
6	2006	강성일	예장 통합	브라질	1978
		조기술	예장 합동	인도네시아	1983
7	2007	서신길	예장 통합	콜롬비아	1988
		김정림	기감	탄자니아	1982
8	2008	이기제	예장 합동	볼리비아	1987
		김성광	예장 통합	파라과이	1984
9	2009	이인응	예장 합동	기니비사우	1989
		김종양	기하성	스와질랜드	1985
10	2010	심재두	예장 합동	알바니아	1993
		이성전	기감	브라질	1990
11	2011	김용애	기감	남아공	1991
		노중기	기감	중국	1993
12	2012	김성준	예장 합동	브라질	1968
		김철기	예장 통합	브라질	1991
13	2013	김영화	예장 합동	아르헨티나	1983
		김동찬	예장 통합	인도네시아	1991
14	2014	최광규	예장 대신	도미니카	1988
15	2015	권영수(경환)	예장 합동	필리핀	1991
16	2016	윤원로	기성	카메룬	1987
		조영춘	예장 대신	말레이시아	2002
17	2017	상영규	예장 합동	필리핀	1996
		안성원	예장 합신	인도네시아	1984
		이규대	예장 통합	인도네시아	1992
18	2018	문누가	미주 한인 장로회	중앙아시아 K국	1994
		신인환	기하성	브룬디	2001
		이상훈	예장 통합	르완다	1994
19	2019	박철현	예장 합동	말레이시아	1999
		우태용	예장 고신	동남아시아 B국	2001
		이영권	예장 합동	탄자니아	1993
20	2020	김글로리아	L.E.I.	아시아 A국	2001
		주성웅	기감	인도네시아	1996

역대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선교 지역 분포

MEMO

발행일 2021년 10월 12일

발행인 서승환
발행처 언더우드기념사업회
기　획 연세대학교 교목실

연세대학교 교목실
0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루스채플 103호
Tel. 02-2123-5037　Fax. 02-2123-8605
https://chaplain.yonsei.ac.kr/

YONSEI UNIVERSITY
1885
연세대학교